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박배균** · 장진범***

Gangnam-ization and Korean Urban Ideology*

Park, Bae-Gyoon** · Jang, Jin-bum***

요약 : 본 논문은 아파트 단지화 및 신도시 개발로 대변되는 한국의 현대적 도시화를 도시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강남 만들기(강남의 물리적 건설과 담론적 재현)’와 ‘강남 따라하기(강남 재현의 도시적 보편화와 강남의 공간적 복제)’라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한국의 도시 중산층들로 하여금 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상하며, 특정한 도시 공간의 모습을 욕망하고 소비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이 현재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산층 거주지 3곳(서울 강남,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에서 22명의 도시거주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이 도시를 상상, 재현, 욕망하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주요어 : 강남화, 도시 이데올로기, 재현, 아파트, 신도시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Korean urbanization,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complexes and new towns, in relation to urban ideology in Korea.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mpacts of the ideological processes of *Gangnam-ization* on the ways in which ‘the urban’ has been represented, imagined, aspired, and consumed by the Korean urban middle class in particular ways. For this research, we interviewed 22 urban middle class people living in three important urban centers (Gangnam, Bundang, and Haeundae).

Key Words : *Gangnam-ization*, urban ideology, representation, apartment, new town

1. 서론 및 문제제기

한국의 현대 도시를 특징짓는 핵심적 키워드는 아마 ‘아파트’일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단독주택이 지배적 주거양식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현재는 아파트가 한국 도시의 지배적 주거양식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비평적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하고(발레리 줄레조, 2007), 아파트가 우리나라 중산층 문화 형성의 근거지로 묘사되기도 하며(박해천, 2013), 아파트 거주가 우리나라 도시의 공동체성을 파괴한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철수, 2013).

신도시는 아파트와 더불어 한국의 현대 도시를 특징짓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이다. 90년대 수도권에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가 건설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걸쳐 다양한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었다. 압축적 도시화의 결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 법을 통해 대규모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했다. 1981년 11개 지구가 최초 지정되어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총 723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고, 2014년 말 현재 총 603개 지구가 준공되었다. 2014년 말 현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전체 택지의 면적은 우리나라 도시지역 육지부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의 약 23.5%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에 거주한다. 요약하면 7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고층의 아파트 단지화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3A204455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3A2044551).)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geopbg@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Ph.D. Student,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apor96@gmail.com)

신도시 건설이라는 2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층 아파트와 신도시로 대변되는 한국의 현대 도시는 아파트 단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과 같은 예외적 공간의 건설에 기반을 둔 공간선택적 압축 도시화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압축적 도시화를 단순히 물리적 도시 공간의 건설과 관련된 현상과 과정으로만 환원시켜 이해하면 도시의 중요한 특징을 놓치게 된다. 도시는 고층건물, 아파트, 직선의 도로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실체로 우리 앞에 가시화되어 나타나지만,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도시의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에만 국한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도시적인 것’은 물리적 건조환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의 특성 등과 관련된 훨씬 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중요하다. 도시의 실제 물리적 형태, 도시에 대한 가시화된 이미지, 도시의 생활환경과 삶에 대한 담론적 재현, 도시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이론화된 논의와 개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적인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고, 도시적 삶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 이상을 가지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아파트 공화국과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도 도시의 공간과 건조환경의 물리적 건설 및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상하며, 특정한 도시 공간의 모습을 욕망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특정한(이미지, 담론, 상징, 지식체계, 권력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강남의 성장과 이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과정이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서,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강남화(Gangnam-ization)’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강남화는 1) 강남을 물리적으로 건설하고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강남 만들기’의 과정과 2) 강남 건설의 과정에서 형성된 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장치와 강남에 대한 재현에 기반한 도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강남 이외의 공간에서 강남식 도시 공간을 복제하는 ‘강남 따라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강남화의

과정 중에서 강남의 담론적 재현을 통한 한국 도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둔다. 특히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성남 분당 이상 세 지역의 도시 중산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강남을 어떻게 재현하고, 어떠한 도시적 비전과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도시와 도시 이데올로기

1) 도시란 과연 무엇인가?

도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은 도시와 촌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시와 촌락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20세기 초중반기 동안 튀니스, 뒤르켐, 짐멜, 위스 등 도시생태학적 시카고학과 연구자들을 통해 정식화되었고, 현재까지도 도시를 설명하는 주류적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인 ‘도시성’(urbanism)을 질적으로 규명하려 했던 위스는 공동체의 문화적 양식에 초점을 두어 도시와 촌락의 이념형적 구분을 시도하였다(Wirth, 1938). 그는 규모(size), 밀도(density), 이질성(heterogeneity)라는 3가지의 생태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관계, 생활양식, 정서가 촌락에서는 1차적인 반면에, 도시에는 2차적이고 경쟁적이며 일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조명래, 2002, 95). 도시성에 대한 위스의 논의는 시카고 학파의 도시생태학적 연구가 초창기 다소 과도하게 생물적(biotic) 결정론으로 흘렀던 한계를 벗어나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조명래, 2002, 97) 20세기 도시사회학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하지만, 도시와 촌락의 이념형적 구분에 기반하여 도시를 연구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하여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도시화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시와 촌락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적 특성과 촌락적 특성이 뒤섞인 복합적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밝혀지면서, 도시-촌락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증적 차원의 비판과

더불어, 최근 들어 도시를 촌락과 대비하여 이론화하는 인식론에 대한 이론적 문제제기도 대두하고 있다. 특히, Brenner·Schmid는 도시-촌락 이분법이 도시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인구나 활동이 집중되어 형성된 정주형태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들 도시지역 혹은 인구밀집지가 내부적으로 독특한 도시적 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 결과 도시의 공간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인구가 과밀하게 집적된 장소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저밀도의 정주지로 영토를 가로질러 확장되어 변형되고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Brenner·Schmid, 2014, 14). 오늘날 도시화는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전지구적 도시화의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도시 중심이나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비도시적인 곳으로 분류되던 도시의 주변부, 준도시 지역 등도 전세계적인 도시화 과정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도시론의 바탕에 깔려 있던 도시-촌락 이분법적 인식론은 점차 그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도시 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비도시적인 것도 점차 불균등하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화의 과정 속으로 내부화되고 있다(Brenner·Schmid, 2014, 20).

2)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와 ‘마주침(encounter)’의 장으로서의 도시

도시-촌락 이분법에 기반한 도시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의 도시이론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제안했던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개념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도시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이론들이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하여 도시를 독특한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명확히 구분가능한 ‘사회적 객체’(social object)이자 공간적 단위로 보았다면, 르페브르는 이와 달리 도시라는 형태보다는 도시화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훨씬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였다(Schmid, 2012, 45). 특히 그는 행성적 도시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도시적 변화

의 장기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화를 자본주의 산업화의 공간적 확산과 관련하여 바라보았다.

그런데, 르페브르가 도시화를 자본주의 산업화라는 비공간적 사회과정에 의해 야기된 공간적 결과이자 표현으로 보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산업혁명은 촌락으로부터 도시로의 거대한 인구이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는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공장과 노동자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산업화의 과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산업의 논리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산업화는 도시화와 매우 복잡하면서도 상호갈등적으로 얽혀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산업화는 도시화의 조건과 수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시화는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달과 전지구적 산업생산의 확산을 가능케 한 물질적 토대였다”(Schmid, 2012, 46). 산업적 생산은 사회의 도시화를 야기하고, 도시가 특정한 수준의 성장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는 산업생산을 창조하고, 산업화를 생산하며, 산업화를 위한 비옥한 조건을 배양하고, 산업적 모순을 도시의 모순으로 변화시킨다(Merrifield, 2013, 911).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촌락 지역들은 점차 도시적 직조로 재구성·식민화되며, 전통적 도시들은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르페브르는 촌락과 구분되는 도시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도시화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도시연구를 통해 밝히려 하였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 같이 ‘도시’로 번역되는 city와 urban의 프랑스식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관한 명사 ville(영어로는 city)와 도시에 관한 형용사 urbain(영어로는 urban)을 구분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점차 진전, 심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행성적 도시화와 함께 특정 지역의 중심지이자 좁은 공간에 집중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지주지로 기능하면서 고정된 공간적 형태를 지녔던 전통적 도시(city)는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펼쳐지고 모양과 형태도 없으며 경계도 불확실한 새로운 ‘도시적 직조’(urban fabric)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Lefebvre, 2003; Merrifield, 2013, 911). 즉, 전통적 의미의 도시가 한때는 단단하고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행성적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이제는 유동적인 것이 되면서 더 이상 물질적 객체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론 속에서 르페브르는 ‘전통적 도시’의 폐허 위에 ‘도시적 사회’(urban society)가 등장하고 있고, 도시는 더 이상 사회적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역사적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의미로 보았을 때 도시는 일종의 허위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Lefebvre, 2003, 57).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대안적 이론화의 가능성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영국의 비판 지리학자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르페브르의 문체의식을 적극 받아들여, 전통적 의미의 도시 개념 대신에 ‘도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도시를 재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Merrifield, 2013, 912). 메리필드는 사고의 초점을 ‘도시’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추동한 것과 같은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특히, 휘어진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적 중력이 절대적 공간 위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구성물이며, 전세계를 떠다니는 상품, 자본, 화폐의 덩어리와 속도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휘거나 뒤틀어지게 하는 자기 자신의 시공간 차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적인 것’은 고정된 공간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 안에서, 그리고 도시를 통해서 지나가고 떠다니는 상품, 자본, 화폐, 사람, 정보 등의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적인 것의 순수한 형태로서의 도시는 마주침, 모임, 동시성의 장소이다. 이러한 형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매력과 살아있음이 충만한 곳이다. 도시는 추상이지만, 실천적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상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산업, 기술, 부의 산물이

고, 문화, 삶의 양식, 상황의 작품이며, 일상의 변조이자 과열이다. 따라서, 도시는 모든 내용이 축적된 곳이다. 하지만, 도시는 여러 상이한 내용물들의 단순한 축적과는 달리 그 이상이다. 도시의 내용물들(물건, 대상, 사람, 상황 등)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타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포용적인데 이는 그 상이한 내용물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상호적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Lefebvre, 2003, 118-119).

이를 바탕으로 메리필드는 도시를 특정한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을 가진 만남, 마주침, 회합의 장소로 보았다(Merrifield, 2013, 916). 메리필드는 사람들의 만남과 사회적 관계들의 마주침을 벗어난 도시 그 자체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도시가 보내는 표시는 모임의 신호”라는 르페브르(Lefebvre, 2003, 118)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시는 인간적 실재와 활동, 교환, 조합, 인간들 사이의 접근, 인간들의 집중과 마주침 등을 벗어나서 도시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으며, 어떤 목적에도 봉사하지 않고, 어떠한 실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도시가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과 마주침을 가능케 하는 빈 그릇(container)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는 모든 것을 끌어 모아 이들로 하여금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만나게 하는데, 자본, 물자, 사람, 정보, 활동, 갈등, 긴장, 협력 등과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도시적’ 상황은 이들 모인 주체들을 변화하도록 추동한다. 즉, 도시가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마주침이 일어나는 그 마주침의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활동, 사건, 우연적 만남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적인 것 그 자체에 대한 핵심적 정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마주침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도시인’(urban people)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높은 밀도는 마주침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주침은 또 다시 그러한 밀도의 정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마주침은 도시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한다(Merrifield, 2013, 916).

3)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행성적 도시화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더 이상 하나의 객체이거나 구분가능한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도시는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는 역사적 범주에 불과하다(Schmid, 2012, 46). 그런데 실제로 도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라져야 할 개념인가? 메리필드(2013)는 르페브르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도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르페브르를 비롯한 여러 도시학자들이 도시의 형태와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비일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 개념의 유용성에 회의를 표시하였지만, 도시라는 용어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끈질기게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city라는 개념이 염두에 두었던 전통적 도시의 공간형태, 경관, 특성 등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도시적 공간형태 및 사회적 특성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지만, 세계도시(world city), 혁신도시(innovation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등과 같이 도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언론매체, 정부의 보고서, 학교의 교과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르페브르는 도시라는 범주가 사라져야 할 개념이라는 입장을 거부하면서, 도시가 더 이상 사회적 객체가 아닌 것은 맞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존재물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행성적 도시화의 과정에 따라 여러 역사적 도시들이 산업화된 도시의 논리에 의해 포섭되고 식민화되면서 사라져갔지만, 동시에 수많은 작은 도시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전통적 서구 도시에 대한 역사적 기억에 바탕을 두어 형성된 도시적 이미지와 도시에 대한 재현은 그 자체로 지속되면서, 나름의 이데올로기와 도회적 프로젝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Lefebvre 2003, 57). 즉,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는 물질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객체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입장을 받아들여, Wachsmuth는 도시를 이데올로기로 볼 것을 적극 제안한다(Wachsmuth, 2013). Wachsmuth에 따르면, 도시화는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어서,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도시화의 복잡한 과정을 그 자체로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Wachsmuth, 2013, 4). 그리고 이처럼 그 전체성(totality)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재현(representation)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재현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복잡한 사회적 실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Wachsmuth, 2013, 3). 이런 면에서 도시는 ‘실제 대상(real object)’이라기보다는 ‘사고 대상(thought object)’이다(Wachsmuth, 2013, 4).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도시를 ‘분석의 범주(a category of analysis)’로 바라보지 말고, ‘실천의 범주(a category of practice)’로 바라보면서 접근하자고 제안한다. 도시를 분석의 범주로 본다는 것은 객관적 실체로서 도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객관적 실체인 도시의 특성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는데, 행성적 도시화의 관점에서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도시라는 아이디어가 거부되기 때문에, 도시를 분석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Wachsmuth에 따르면, 객관적 실체로서의 존재가 의심되면서도 ‘도시’ 개념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도시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이 특정의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적 실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는 중립적인 재현물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회적 세력과 집단에 편파적으로 이득을 주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Wachsmuth, 2013, 13). 즉, 도시는 도시화 과정의 실재를 모두 완전히 재현하기보다는 그 경험의 일부만을 재현하고, 이러한 부분적 재현은 도시화의 실재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숨겨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관련하여 Wachsmuth는 도시 이데올로기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가 도시를 혼락과 대비하여 바라보는 방식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다. 앞선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시-혼락 이분법은 이제까지 도시를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통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전통적 개

넘은 1) 인클로저 운동 과정에서 산업과 농업에 대한 공간적 분업이 발생하고, 2) 도시는 사회를, 시골은 자연을 담는 공간적 틀이라는 가정이 생성되며, 3) 도시와 촌락이 서로 상이하고 대비되는 생활양식을 지닌다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Wachsmuth, 2013, 7).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시카고 학파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도시를 설명하는 매우 자명한 이론이 되고, 또한 향후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지시하는 목적론적 분석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신맑스주의 도시이론가들에 의해 이러한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실제로 현실의 도시화가 복잡하고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가 극복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 담론에서 소규모 도시와 교외지역은 도시-촌락 이분법의 틀 속에서 촌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외지역의 주택단지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 “악의 구렁텅이인 도시로부터 탈출하자”, “전통적 촌락 가치로 복귀하자” 등과 같은 담론이 유포된 것과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도심지 개발사업은 최첨단의 진보적인 도시적 삶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홍보된다. 이처럼 도시-촌락 이분법적 사고는 자본주의 축적을 위한 전략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유포되는 이데올로기이다(Wachsmuth, 2013, 7-8).

이상의 예에서 보듯, 도시는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객관적 분석과 설명의 대상이 되는 ‘분석의 범주’가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대변하여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의 범주’이다. 그런데,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세계도시론’, ‘창조도시론’ 등과 같이 도시에 대한 추상적인 학술적 논의와 이론, 혹은 정책적 담론들과 같이 글로벌한 차원의 인지적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고 뿌리내린 글로벌한 보편성을 지닌 도시 이데올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개별 국가나 사회, 로컬리티 차원에서 널리 유포되어 지

배적인 도시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도시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에는 정원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잔디밭을 가꾸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삶을 도시의 이상적 생활양식으로 규범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발달했을 수 있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새로 건설된 신도시에서 잘 관리되는 고층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삶을 이상적 도시생활이라 바라보는 규범적 사고방식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확산된다. 먼저, 국가나 지역 차원의 지배 엘리트가 기득권적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에 대한 특정의 담론과 이미지(예, 도시를 특정한 방향으로 홍보하는 이미지, 도시의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역사적 해석, 도시의 정치-경제적 실재(reality)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해석 등)를 만들고 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 가지는 상식(common sense) 격의 지식, 담론, 감수성과 관련되어 도시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전자와 후자가 합쳐지면서 특정 사회에서 상식의 지위를 획득한 도시를 규정하는 특정의 사고방식, 지식, 담론, 정서 등이 생겨나는데, 이를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에서 도시 주민들의 선호, 욕망, 가치 등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도시 공간의 소비방식과 도시화의 과정, 그리고 도시의 성격과 공간적 형태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자본주의적 정치-경제-문화적 질서와 국가 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도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반드시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와 기존 권력질서를 지키려는 의도 속에서 구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의 헤게모니적 질서에 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counter-hegemonic practices)’의 한 방편으로 도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를 마주침의 장으로 보자는 르페브르와 메리필드의 주장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시를 사람과 활동들 사이의 마주침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으로 봄으로써, 도시

공간을 구획하고 사유화하여 도시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들을 만남과 마주침이라는 도시 본연의 목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게 만든다. 관련해서 메리필드는 마주침을 벗어나서 도시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아니며, 마주침을 가로막는 분리에 대해 사람들이 저항을 지속하는 한 도시에서의 마주침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주장한다(Merrifield, 2013, 916). 르페브르도 비슷하게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분리에 대해 저항해야 함을 강조했다(Lefebvre, 2003, 174). 즉, 메리필드와 르페브르는 도시를 만남과 마주침이 일어나는 장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러한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채 공간을 분할하고 공유재로서의 도시공간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도시 본연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강남과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에서는 도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담론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강남’이라는 상징적 장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고층의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며, 이러한 도시화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도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저층의 조방적으로 건설된 교외의 주택지구에서 거주하는 서구의 도시 중산층과는 차별적인 도시에 대한 상과 비전, 도시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강남’이란 장소의 담론적 재현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강남이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개발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현대적 도시화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의 도시개발과정은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의 축적을 가능케 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도시 중산층이 등장할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물질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강남의 엄청난 주

택가격과 고급 소비문화는 보통의 한국 중산층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은 도시 중산층의 공간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는 강남의 물리적 개발과정과 그 곳에서 도시적 삶과 자산 축적의 경험에 대한 담론적 재현이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도시적 비전과 욕망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도시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강남의 장소성과 담론적 재현에 대한 연구는 제법 존재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강남에 대한 다양한 글과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 이영민(2006), 김남일·백선기(2008), 이동현·이향아(2011)의 논문이 강남의 담론적 재현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미하다. 먼저, 이영민(2006)은 강남이라는 지역을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지역 외부의 구성원들이 자기 집단 혹은 지역과의 차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천시나 질시의 담론을 형성하는 ‘외부적 범주화(external categorization)’에 초점을 두어, 언론이라는 외부적 행위자에 의해 강남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그것이 강남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1974년에서 논문 작성 시점까지의 주요 일간지의 기사 분석을 통해 강남지역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요 주제를 1) 부동산 투기, 2) 교육 문제, 3) 소비문화로 보고, 각 이슈별로 언론 기사의 논조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강남에 대한 언론의 재현이 부동산 투기, 사교육, 고급소비문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김남일·백선기(2008)의 연구도 언론에 의한 강남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은 언론에 의한 강남의 재현에만 머물지 않고, 그러한 재현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강남이 경제적 자본이 집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고 또 부여하는 도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남을 ‘텍스트’로 읽어 낸다. 특히, 기호학적·신화적 방법론을 통해 대중매체가 ‘강남권역’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남의 재현을 바탕으로 강남에 대한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는지 밝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강남권역’은 성공한 지배블록의 거주지이며, 거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생활세계에서 각종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언론을 통해 미학화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묘사되며, 결국 강남은 특권적 지역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강남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자본이 상징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이 만들어내는 강남에 대한 신화와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한국 사회의 수직계층화, 욕망의 과잉, 승자독식의 파행적 경쟁문화를 유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에 의해 형성, 유포된 강남에 대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분당, 목동, 평촌 등 서울과 수도권 외의 다른 중산층 거주 신도시 지역으로 확장되고, 이들 지역들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버블 세븐’으로 기호화되면서 강남식 신화와 상징의미가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문들이 강남에 대한 단수의 지배적인 담론적 재현과 이미지가 있음을 상정하는 반면에, 이동현·이향아(2011)는 강남에 대한 재현이 균질적이지 않으며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함을 강조한다. 특히, 강남을 내부적으로 균일한 특징을 가진 단일체로 보려는 태도를 경계하면서, 강남 정체성의 내적 이질성과 복잡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그들은 강남은 지리, 사회, 문화적으로 균일하지도, 연속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공간경계를 설정하고 분석하여 그로부터 강남현상의 일반성을 도출하는 대신, ‘심상 경계긋기’라는 방식을 이용해 대중의 인식으로부터 직접 강남의 공간경계를 도출하여,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내부적 이질성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의 지역성이 지역 공간상에서 강남에 대한 각기 다른 심상지리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접합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한다(이동현·이향아, 2011, 126). 이처럼 강남은 외부자들이 쉽게 규정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정체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이 논문은 강남 외부 거주자들이 강남을 바라보는 태도의 모순성과 이중성

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외부자들이 강남을 묘사하고 재현할 때, ‘부동산’, ‘땅’, ‘사치’, ‘럭셔리’ 등의 물질적 가치를 포함하는 어휘를 다수 이용하여 강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강남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냐는 설문조사에서는 강남 비거주 응답자 117명 중 93명이 강남으로의 이주를 희망(이동현·이향아, 2011, 156)하여 강남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남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상징화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강남에 대한 재현은 강남 거주자들의 내부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이영민, 2006). 하지만, 강남의 내적 정체성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이질적 정체성이 접합하여 강남의 장소성을 형성한다(이동현·이향아, 2011). 외부인들에 의한 강남의 재현방식에는 질서와 부러움, 부정과 욕망의 이중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외부인들이 강남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강남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신화화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신화적 재현이 한국 사회의 주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기여한다(김남일·백성기, 2008). 결국, 한국에서 도시에 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도 강남의 개발과 중산층의 탄생 과정, 생활조건 등에 대한 담론적 재현이 신화화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화화된 도시 이데올로기는 한국 중산층의 도시적 비전과 욕망을 형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개발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현대 도시화 과정을 추동한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

3. ‘강남 만들기’와 ‘강남 따라하기’의 이데올로기

앞의 문제제기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현대적 도시화의 특성을 도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강남’이라는 한국의 지배적 도시 담론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를 ‘강남에 대한 재현적 구성(강남 만들기)’과 이렇게 ‘재현된 강남의 공간적 복제(강

남 따라하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개발에 기반한 강남식 도시화가 특히 두드러진 3개의 지역(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도시 중산층에 대한 생애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려 하였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도시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국가나 지방의 지배엘리트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개발은 국가의 정책적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어서, 70년대 이래로 중앙정부, 각종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이 아파트와 신도시를 새로운 근대적 주거문화와 도시적 공간으로 상징화하려고 행한 다양한

담론적 실천들이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에 의한 도시 이데올로기 형성의 과정 보다는 도시공간의 소비주체들이 도시에 대한 상식 격의 지식, 담론, 감수성 등을 어떻게 형성하고 공유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생애사 인터뷰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성남 분당에서 장기간 거주한 도시 중산층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으며,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22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현 거주지는 강남이 6명, 부산시 해운대가 7명, 성남시 분당이 8명, 경기도 용인이 1명 이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과 부산의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

표 1.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 특성

연번	현 거주지	연령대	성별	주요 거주지
1	강남구 역삼동	40대	남	서울시 은평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2	강남구 수서동	70대	남	서울시 성북구, 마포구, 동대문구, 강남구 등
3	강남구 대치동	50대	여	서울시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등
4	성남시 분당구	40대	남	서울시 동작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수지구 등
5	용인시 수지구	70대	여	서울시 동작구,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6	강남구 수서동	30대	여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강진구 등
7	강남구 대치동	50대	여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남양주시 등
8	송파구 잠실동	40대	여	서울시 은평구, 양천구, 강남구 등
9	부산 센텀시티	40대	여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경남 마산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마포구, 관악구 등
10	부산 센텀시티	30대	여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일산, 부산시 해운대 신도시 등
11	부산 해운대	30대	여	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구서동 등
12	부산 마린시티	60대	여	서울시 종로구, 부산시 서구, 경남 마산, 부산시 광안리, 부산시 센텀파크 등
13	부산 마린시티	50대	여	경남 마산시, 부산시 광안리 등
14	부산 마린시티	40대	여	경남 김해시, 부산시 광안리 등
15	부산 마린시티	40대	여	대구시 수성구, 부산시 등
16	성남시 분당구	50대	여	경남 마산시, 성남시 중원구 등
17	성남시 분당구	50대	여	경기도 일산, 경남 진주시 등
18	성남시 분당구	50대	여	서울시 동작구, 강남구 등
19	성남시 중원구	50대	여	서울시 은평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등
20	성남시 분당구	50대	남	서울시 동작구 등
21	성남시 분당구	50대	여	성남시 중원구 등
22	성남시 분당구	40대	여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등

중에는 이전에 강남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명 포함되었다(표 1 참조). 인터뷰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4명 뿐이고, 나머지 18명은 여성이어서, 여성 인터뷰 응답자가 대부분인데, 이는 주거이동의 선택과 관련하여 여성의 선택권이 더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이들 베이비부머들이 한국 도시 중산층의 핵심적 세대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인터뷰에서의 질문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강남과 신도시에 대한 재현을 파악하고, 이 재현이 인터뷰 응답자들에게 일으킨 정서와 욕망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강남, 이상적 (신)도시’라는 재현

(1) ‘정돈된 공간’(well-ordered space)

강남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 다수가 강남식 도시경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재현한 것은, ‘정돈된 공간’이었다. 이때 ‘정돈’의 예로 제시되는 것은 (휘어 있는 길과 대비되는) ‘곧게 뻗은 큰 길’, (무계획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계획적 공간’, (가시성이 낮은 골목과 대비되는) ‘가시성이 높은 네모반듯한 길’, (뒤섞이고 부조화스러운 경관과 대비되는) ‘정리되어 있고 조화로운 경관’ 등이었다. 이 같은 재현은 모종의 가치 판단을 동반하면서, 강남식 도시경관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2000년대 후반에 3년 정도 경기도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면, 고향에서 상경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강남에서 계속 살고 있는 한 인터뷰 응답자는, 심지어 강남의 정돈된 공간(반대로 강남 바깥의 ‘무질서한’ 공간)과 그곳 거주자들의 ‘품행’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고까지 재현했다.

사실은 이렇게 길을 나서면. 뭐 중계동 쪽에 가서 바라보는 도로의 느낌이란, 대치동에서 바라보는 그 거리 느낌이란. 완전히 틀려요. 어쩌다 부천 같은 데 가 보면 중국에 와 있는 거 같이 느낌이 들어요. (...)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고. 뭐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잘 돼 있고. 가로수 같은 게 그렇고. 또 간판 같은 거도. (...) 같은 색

깔로 통일해서. (...) 일목요연하게. 글씨체도 글씨체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또 학생들 옷 입고 노는 것도 틀린 거 같아요. (...) 튀지 않고. 명품을 이렇게 입으면 그게 막 날리고 가벼워 보이지 않고 가라앉듯이. 그런데 어쩌다 중계동이나 부천 같은 데 가 보면. 무슨 학생들이 뭐 다 얼굴은 하얗게 칠하고, 입술은 다 바르고. 교복도 아주 티 나게 막 변형시켜서 다 입었더라구요. 가방 메는 것도 틀리더라구요. 가방도 보면 위로 이렇게 막 붙여서 메는데, 요게 가운데 딱 오게. (웃음) 그런 것도 틀리고. 거리에 간판 같은 것도 이제. 부천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 현란하다. (...) 진짜 뭐. 공통점이 없어. 시청 건물도 다~ 색깔 틀리게 뭐 간판을 뭐 도배를 해 놓고. (...)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뭐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꾸미지 않아도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 같애. (사례 7)

그런데 ‘정돈된 공간’에 관한 재현과 선호는, 분당 신도시와 부산 센텀시티에 사는 인터뷰 응답자들이 현 거주지에 관한 재현과 선호를 진술할 때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가령 1990년대 초반부터 ‘구(舊) 시가지’인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신 시가지’인 성남시 분당구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인터뷰 응답자는, 전자의 경우 “높낮이 차이도 크고” “복잡하게 밀집돼 있어” “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 후자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생활의 모든 게 다 (...)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시(市)의 느낌”이 들며,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킨다고 재현했다. 또 부산, 마산, 경기도 부천, 서울시 마포구·관악구 등 다양한 주거이력을 지닌 한 인터뷰 응답자는, 현재 살고 있는 부산센텀시티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전부 새로 지은” 곳이다 보니, “골목에 이렇게 주차할 데도 없”는 “강 건너”와 달리, “건물이 딱딱딱 잘 들어가고” “통일적”이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시화된, 구획 잘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재현했다. 이렇듯 인터뷰 응답자들 다수의 재현에서 공통적인 점은, ‘정돈된 공간’으로 요약되는 강남식 도시경관과 (도)시의 일반적 경관을 등치시킨다는 것이다.

성남 구 시가지에 살다가 분당 신 시가지로 이주한 주거이력을 공유하는 두 인터뷰 응답자는, ‘정돈된 공간’의 내포 중 하나로 ‘공간적 분화’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이를 ‘안전’과 연결시켰다. 이런 재현은 부산 마린시티와 부산 센텀시티를 대립시킨 센텀시티 거주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래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성남의] 주거지역은 좀 달라요. (...) 애들이 가게 왔다가 집에 와야 되면 그 사이가 그런 거였어요, 길진 않지만. (...) 그 사이가 십 분 동안 걷는 게, 한 오 분 정도 걷는 게 그런~ (...) 좀 깨끗하지가 않고, 뭐 그니까 거리가 깨끗하지 않다기보다, 굉장히 성인들이 놀고, 성인들이 놀기에 좋은, 성인들의 문화가 많이 발달한 거. 애들한테는 좀 그런 술집, 영화관, 그리고 아가씨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적인 면으로는 좀 그런 거 같아요. 학교 형성되어 있는 데가, 학교를 지나서, 한 도로만 건너면 모텔촌이 짝~ 되어 있어요. (사례 16)

그런데 마린시티는~ 여기랑 좀 컨셉이 좀 다른 거죠. 센텀이랑. (...) 마린시티는 유흥이랑 뭐 이런 쪽으로. 좋고, 주거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아파트 있고, 학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들 사무실, 정보 뭐 하얏튼 그런 쪽으로~ (...) 유흥가도 그렇게 다들 요식업이 대부분이고, 유흥가는 없고. 그게 우리 지금 우리 아파트의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사실. 그런 류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 그런 부분이 나도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이리로 왔거든요. 안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서 집에서 학교를 왔다갔다 하는 거가~ 아주 안전한. (...) 피씨방도 하나 없거든요. 단지 안에. (사례 9)

즉 ‘정돈된 공간’이란 가령 ‘주거지역’과 ‘유흥지역’ 등, 용도를 달리 하는 공간이 서로 뒤섞이지 않고 알맞게 ‘분화’되어 있는 공간이고, 이렇듯 분화된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다. 뒤집어 말하면, 용도를 달리하는 공간들의 미분화는 ‘불안함’, 나아가 ‘불결함’의 원인으로 재현된다. 특히 사례 16 인터뷰는 이런 의미연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뷰 첫 문단에 나타난 ‘깨끗하지 않음’에

관한 재현은, ‘더러움이란 제자리를 벗어난 물질’(Douglas, 2008(1966), 44)이라는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의 고전적 정의를 연상시킨다.

많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재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정돈되지 않은 공간’과 ‘과밀한 공간’ 사이의 등식이다. 이는 도시의 ‘질서’와 ‘인구’를 계획적으로 타산·규제·관리할 수 있는 공적·사적 권력의 불충분함을 환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강남식 도시경관, 나아가 ‘신도시’에 대한 재현과 선호(또한 ‘구도시’에 대한 재현과 기피)에서 중요한 차원은, 공적·사적 권력, 그리고 그 함수인 ‘정돈’과 ‘분화’, ‘안전’ 등인 셈이다.

(2) ‘고급 대단지 아파트’라는 ‘자기충족적 세계’(self-sufficient world), 그리고 ‘공간적 예외성’

강남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 다수가 강남식 도시경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재현한 것은, ‘고급 대단지 아파트’라는 ‘자기충족적 세계’였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에 각각 압구정동과 가락동의 고급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했던 두 인터뷰 응답자는 당시의 주거지를 아래와 같이 재현했다.

어쨌든 접근성이죠 뭐가. (...) 주택은 멀리 가서 사야 되니까. 아파트는 그 앞에 다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 그 앞에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고. (...)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그 어쨌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 운동도 거기 가면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사례 18)

올림픽 월드컵 단지. (...) [단지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그니까, 이~ 단지 안에 있으면 이 작은, 이 큰~ 주변에 큰~ 상가들도 많지만 사이사이 사이에 굉장히 상가들이 많았어요. 조그조그하게. 그런데 각각의 특성들이 있었어요. 요 상가는 뭐가 좋다, 예를 들면 요 상가는 떡볶이가 맛있다, 요 상가는 주스가 맛있다. 각각의 특성들이, 상가들이 있었고. 단지 안에. (사례 22)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상가들이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 사이에” 입지한 공간, 따라서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자기충족적 세계, 강남에서 ‘발명’된 이 새로운 고급의 도시공간은 강남 이후 신도시들의 ‘강남 따라하기’에서 핵심을 이루었다. 가령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 살다가 현재 센텀시티에 살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 그리고 현재 마린시티에 살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 ... 센텀파크는... 해놓고 후회를 했어요 ... 제일 처음에.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도 마찬가지로였어요, 거기도 제일 처음에 황무지였고 (...) 사람들이 못 산다. 폭폭 빠지는 진흙탕이다 이랬는데, 결국 그거는~ 루머에 지나지 않고 ... 살아 보니까, 전부 다 ... 나중에 다~ 되더라고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신시가지가. 굉장히 안에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산에서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여기 시내 나올라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도시, 거기까지는. 근데,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조성되더라고요. 시장이니 뭐니 애들 학원이니 뭐니 전~부 다.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는데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또 센텀시티라는 우리 도시를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볼 때, 조금 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사례 9)

여기 좋은 거는, 요즘은 이제 다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 오면 집 앞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 있고, 부산도 이제 날씨가 이러니까 인제 실내 아이스링크가 없거든요. 여 여기 부산 최초로 아이스링크도 있죠. 바로 옆에 있고. 또 유치원 좋은 데 있고. 학교도 (...) 사립을 갈 이유가 없고. 사립보다 더 좋은 공립이. 집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좋은 유치원 있고. 공기 좋고 나가면 바닷가고. 그니까 매일 애 데리고 유모차 데리고 바닷가 다니고. 생활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뭐~ 마트 같은 거 잘 돼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좋은, 편안한 거죠. (사례 13)

고급 대단지 아파트를 자기충족적 세계로 만든 중요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모의 경제였다. 이러한 ‘수요 측 규모의 경제(demand side economies of scale)’는 2000년대 초반 자녀를 영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강남구 일원동에서 도곡동으로 이주한 인터뷰 응답자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수요 형성이. 일원동은 떨어져 있어서. 애가 어리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서투로 애를 데려다 주고 데려 왔을 텐데. 어리니까. 근데 도곡동 거기 (...) 아파트가 좁~ 있잖아요. 거기 다 엄마들이 모여 있으니까. (...) 거긴 죄다 아파트잖아요. 도곡동, 개포동 다 이렇게 다 네 군데 포진되어 있잖아요. 거긴 애들이 엄청 많고, 거기에 따라서 영유치원 다 있거든요. (사례 18)

즉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 지구’도 아니고, ‘서민 대단지 아파트’도 아닌, 강남 신도시에서 ‘발명’되어 다른 신도시들에 ‘수출’된 ‘고급 대단지 아파트’가 ‘대규모 고급 수요’의 물리적 기반이 되었고, 이 수요가 이끄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기충족적 세계가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규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한국의 도시 중산층에게 주는 매력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편이성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바깥 세계의 사람들과 굳이 얽히고 충돌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꿈꾸는 도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공간적 예외성’이다.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모두 바꾸려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 없이,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자기충족적’ 세계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거주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만 감수한다면, 그들이 이상으로 그리던 도시적 생활을 예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 중산층을 위한 자기충족적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공간적 예외성’은 한국 도시 중산층의 부동산 교환가치 의존성과 결합되어 한국 도시 중산층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발전을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 집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중요 조건이 되었다.

(3) '신도시'에 대한 욕망과 환멸의 끝없는 교대

강남에 관한 가장 지배적인 재현 중 하나는, 강남이 한국 최초의 '신도시'라는 것이다. 반듯하게 정돈된 큰 길, 고층의 건물, 근대적 주거환경을 갖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은 새로운 근대적 도시적 경관을 '발명한' 최초의 신도시가 강남이라는 재현은, 강남에 대한 매혹과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도시 강남'이라는 재현이 강남에 대한 '환멸'을 일으키고 '신-신도시'를 향하게 만드는, 정 반대 방향의 동기로 뒤집히기도 한다는 점이다. 1970년대 후반 강남으로 이주해 이곳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명실상부한 '강남키드'였으나, 2000년 무렵 가족과 함께 분당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인터뷰 응답자는 이 전도(顛倒)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그 때 내가 이 강남역에서, 그 때는 완전 깨끗했지. 안에 사람도 별로 없고. (...) 누워서 앉으니까, 그 초록색 2호선 의자에 누워서 (...)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강남역까지 누워서 오던 기억이 나. 근데 그게 변한 거야. 내가 그게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 지하철에 막 깨끗한 냄새. (...)

내가 느꼈던 게, 기차로 그렇게 상장이 돼. 이 도시는 그렇게 깨끗했던 기차, 신형, 신제품 뭔가 대단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사그라지고, 내가 이제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이 되게 별로였다고 했잖아. 지하철 타고 내릴 때 느낌이 굉장히 고역이었거든.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지하철 타면 깨끗하고 요금도 그냥 냈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가장 즐거웠는데, 한 20년, 25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지옥철에다가 지하철 무슨 지하철인지 막 지저분하고, 그 초록색 시트가 누워 있으면 막 깨끗한 냄새, 새 쇼파 냄새 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막 더러운 냄새 나고... 그게 딱 강남에 대한 나의 느낌이야. (...)

그래서 인제, 분당,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 강남 사는 사람들은 분당으로 가고 강북 사는 사람들은 일산 많이 갔잖아? 어떤, 우리는 약간, 신도시에서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도 있었어 약간. 뭐 그때는 강남보다는 분당이, 뭔가 좀, 더 깨끗하고, 더 주거환경이 좋

고, 뭔가 더 힙하고? (...) [강남은] 울드하고, 그 쪽이 신이고 인제 강남은 강북처럼 될 것이고, 거기가 인제... 그 새로운 강남이라는 생각? (...)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분당으로] 많이 갔지? 약간 우리도 소외됐다는 느낌? 우리도 신도시 시민이 한번 돼 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러고 간 거지 이제. (...)

그러니까 뭔가 나도 좀 한가하고 여유롭고, 그런 삶을 꿈꿨는데, 수지나 분당도 내가 꿈꿨던 그런 건 아니었어, 환상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걸 꿈꿨던 거야, 그거보다는 좀 더 타운하우스에 가까운 느낌? 결국은 도시였고 몇 년 동안 주차만 널널하게 했지. 요즘은 주차도 뭐 빠져서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하고. (사례 4)

모든 새로운 것은 필연적으로 낡을 수밖에 없으며, '최초의 신도시'인 강남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만일 강남에 대한 욕망과 매혹의 원천이 '신'도시라는 재현에 있다면, "강남은 강북처럼 될 것이고"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신'도시가 "더 깨끗하고" "여유"로우며 더 "힙"하다는 재현이, 강남에 대한 환멸과 '신-신'도시에 대한 욕망.매혹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신도시'에서 기대한 "좀 한가롭고 여유롭고, 그런 삶"은, 위 인용문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에 가깝다. 하지만 환상이든 아니든, 이 재현이 '신'도시와 '신-신도시', 그리고 '신-신-신도시' 개발을 떠받치는 중대한 정서적 동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00년대 초 당시 부산 최대의 고급 대단지 아파트('신-신도시')에 이주했다가, 최근 마린시티('신-신-신도시')로 이주한 아래 인터뷰 응답자의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궤적을 거친 다른 인터뷰 응답자의 이야기는 이를 확인시켜 준다.

○○ ○○○○○라고 (...)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단독 메이커로는 최대 단지라고 그랬어요. 7800세대였어요. (...) 거기서 18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조금, 집이 좀 많이 낡았잖아요 18년을 살고. 이제 그러고 막 집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인제 그 때는 그게 제일 좋았지만, 차츰차츰 인제 좋은 게 생기니까. (...)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뭐 우리가 게르만 대이민, 민족 이

동하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 그쪽으로
씩~ 옮긴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평수하고
인제 한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사
니까 새로 좋은 아파트들이 더 편리한 곳이 나
오니까 거기로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
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나도 자동적으
로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제 평수도 다 넓
혀서 새 집을 좋은 집을 좀 더 인제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죠. (사례 13)

그래가지고~ 저기 센텀파크. 그 그니까는 저
쪽에 센텀파크가 아주 고층아파트로 처음 부산
에 생긴 거예요. 그게, 어~ 오십 몇층까지 있는
아파트. 2006년도에 오십 몇층까지 있는 아파트
면 좀 드문 아파트거든요? 거기서 그쪽에 이사
를 갔다가. 수순이 그래요 신시가지 갔다가 부
산 사람들은, 해운대 신시가지 살다가, 센텀파
크 갔다가, 마린시티로 오는 게 그냥 이렇게.
(웃음) 그 수순이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
파트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래 갖고, 2000
년도에 여기 마린시티 아이파크로 오게 됐어요.
(사례 12)

2) ‘전국구 강남’이라는 재현과 강남의 ‘회춘’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인터뷰 응답자들 다수의
재현에서 강남(식 도시경관)은 도시 이데올로기의
원형적 준거점의 자리를 점한다. ‘강남, 이상적
(신)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을 이 재현은, ‘강남 따
라하기’를 추동하는 주요한 정서적 동력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다만 ‘신도시’라는 재현 자체는,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최초의 신도시 강남’에 대한 욕
망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신도시로 전이된다면,
‘한때 신도시였던 강남’에 대한 환멸로 귀결될 수
도 있다. 즉, 강남을 떠나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신-신도시’로 “게르만 대이민”과 같은 인구의 이
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강남으로 다시 인구가 자본이 되돌아
오는 (사례 4 인터뷰 응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남의 “회춘” 현상이 나타난다. 강남의 “회춘”은
‘강남, 이상적 (신)도시’라는 재현만으로는 충분하
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재현이 강남
의 “회춘”을 뒷받침했을까?

(1) ‘강남, 경제의 중심지’라는 재현

관련해서 강남에 사는 인터뷰 응답자들과 강남
이외의 신도시에 사는 인터뷰 응답자들이 각각 현
거주지의 대표적인 시설이나 경관, 이른바 ‘랜드마
크’를 재현하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삼성역 무역센터’, ‘교
보타워’, ‘테헤란로’ 등 경제적 의미를 지닌 시설을
주로 든 데 반해, 후자는 ‘탄천’, ‘공원’, ‘백화점’이
나 ‘마트’, ‘요트경기장’, ‘광안대교 옆 고층 아파
트’, ‘브랜드 커피숍’ 등 녹지나 소비 관련 시설을
주로 들었다. 요컨대 강남은 다른 신도시들과 달
리 주거 생활에 특화된 공간(‘베드타운’)으로 환원
되지 않는, 나름의 고유한 경제적 의미와 중요성
을 지니는 공간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거... 바로 삼성역. 그 무역센터. (...) 건물도
높지만은. (...) 우리나라 경제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다. (...) 그 무역센터 있음으로 해서 그 뭐
회의 전부 다 거기서 하잖아 다. 하고 하니까.
난 거기가 강남의, 우리나라의 중심지지 사실.
무역, 경제적으로. (...) 거기 앞으로 뭐 한전[부
지] 거기 백몇층 들어오잖아. 앞으로 더 발전할.
거기는. 줄어들 수가 없죠. 거기는 뭐 영원히,
우리나라의 경제, 어, 초점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사례 2)

1978년에 강남으로 이주한 이래 40년 이상 강
남에 살았던 위 인터뷰 응답자는, ‘삼성역 무역센
터’가 “우리나라 경제 그 근원”일 뿐만 아니라, 재
벌 기업 본사 등 새로운 산업 관련 시설이 계속
들어서는 “줄어들 수가 없”는 “중심지”인 한에서,
이곳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역시 그럴 것이라고
재현한다. 강남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
망을 동반하는 이 같은 재현은, 가령 ‘도심재개발’
등 강남의 “회춘”을 뒷받침한 강력한 정서적 동력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국구 강남’이라는 재현

강남과 여타 신도시의 차이, 더 정확히는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재현하는 또 다른 대표
적 사례는 바로 (사)교육이다. 강남에 살 때 자녀
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일원동에서 도곡동

으로 이주한 적이 있고, 분당에 살면서도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늘 강남을 오갔던 한 인터뷰 응답자는, 분당은 “분당구”이지만, 강남은 “전국구”라고 재현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 애가 이과 쪽 성향을 많이 보여 가지고, 과학이나 수학을 시키는 데 있어서 분당 쪽에서는 제가 (...)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 애들이 안 모이잖아요. 분당은. 근데 강남은 모여요. (...) 저만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거기를 가면, 저기 강 건너 강북에서도 오고,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학원이 있어요. 강남 대치동에. 거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수요가 없으니까. 애들을 봐 주는 학원이 없거든요. 분당만 해도. (...) 모든 학원은 최고 학원은 거기[강남] 있으면. 똑같은 선생님이 여기 와도, 어쨌든 거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 모이는 애들이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구잖아요. 여기는 분당구잖아요. 그니까 선생님들도 주는 게 달라요. 던져 주는 게 달라요. (...) 강남 애들이기보다는. 정말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라는 거죠. (...) 그만큼 거기가 정말 특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례 18)

실제로 부산 마린시티의 두 인터뷰 응답자도, 방학 때마다 강남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를 보거나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 센텀시티에 사는 인터뷰 응답자도 “교육적인 문제에서” 현 거주지와 강남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고 재현했고, 이 때문에 강남의 “교육특구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고백했다. 강남의 고급 대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 내는 교육 수요와 이것이 가능케 하는 ‘규모의 경제’, 이 경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사교육 상품과 이를 소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재와 자원, 이에 힘입어 더욱 커지는 규모의 경제. ‘강남, 사교육의 전국구’라는 이 재현을 통해 인터뷰 응답자들은 강남의 사교육 시장에서 작동하는 중심-주변 구조를 포착하고 있다.

사실 강남의 사교육 시장은 강남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에서 작동하는 중심-

주변 구조는 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는 강남이라는 ‘전국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은 대체불가능하다는 재현을 낳는다. 그리고 이 재현은 강남 바깥의 신도시에 살고 있는 다수의 인터뷰 응답자들로 하여금 강남을 계속 욕망하게 만들고, 적어도 강남과의 실재적·상징적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으로써, 강남의 중심성을 뒷받침하는 데 정서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국구 강남’이라는 재현은 강남의 ‘회춘’을 뒷받침한 또 다른 주요 정서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장주(大將株) 강남’과 ‘자산으로서의 도시’라는 재현

이상에서 살펴본 재현들은, 강남을 정점으로 하는 중심-주변 구조를 공고히 하고, 강남의 ‘회춘’을 뒷받침하는 데 정서적으로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재현들은 말하자면 ‘사용가치로서의 강남’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강남의 재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은 ‘교환가치로서의 강남’, 또는 ‘자산으로서의 강남’이다. 10대 시절인 1980년대 초 강남으로 이주한 후 대부분의 삶을 강남에서 보내다가, 2000년대 초 강남에서 자가를 구매한 한 인터뷰 응답자는, ‘우량주(株)로서의 강남’이라는 흥미로운 재현을 말해주었다.

내가 왜냐하면 집을 그때 강남을 고집해서 샀었거든. (...) 그때 양가에서 다 반대했었어. (...) 왜 여기를 사냐, 왜 이렇게 [가격이] 제일 높은 때에, 이거 다른 데 가면 조금 더 넓게 살 수 있는데. 이게 24평이거든 지금. 근데 내가 그때 거의 나의 고집처럼 해 가지고 샀었어. (...) 왜 그냥 뭐 그걸 샀느냐 (...) 그때 내가 막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 회사에서 주식하고, 내가 경험상 주식을 해서, ○○전자 주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자가 떨어지면 주가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 장이 다 떨어지잖아. 제일.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라구. 그러니깐 뭐랄까 그니깐 어, 우량주, 주식으로 말하면 우량주 같은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었던 거지. (...) 내가 만약 그 집을 돈을 다 내고 사야 된다고 하면 나도 못 샀지. 근데 이거를 중도금을 내듯이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

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니깐 이렇게 하면 와이프랑 나랑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이거를 담보를 잡아서 그러고, 정~ 못 견디겠으면 이걸 팔면 되지, 이런 식의 투자 생각 비스무리한 것도 같이 있었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썩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에 어느 정도 도움과 또 우리가 모아둔 돈, 뭐 탈탈 털고 뭐 하여간 해 가지고. 아휴 나름 중도금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 대출[도] 받았[고]. (사례 1)

같은 가격으로 “다른 데 가면 조금 더 넓게 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양가에서 강남 아파트 구매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인터뷰 응답자의 일차 관심사는 주거 환경이라는 ‘사용가치’가 아니었다. 인터뷰 응답자는 ‘주식(시장)’과의 유비를 통해 주택(시장)을 재현했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태에 접근했다. 더욱이 주택이 “모아둔 돈”을 “탈탈 털고” “양가”의 “도움”은 물론 “대출”까지 동원해야 하는 고가의 상품인 한에서, “우량주”의 지위를 점하는 강남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대장주라는 거지. 강남, 분당 이런 데들은 잘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들은 3배씩 못 오르고 2배만 오른다 할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 [강남에] 당연히 투자는 할 수 있지.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여기는 이상하게 어떤, 굳건해. 아까 얘기한 회춘도 했고.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면 이 쪽으로 하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래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빌딩을 산다, 그러면 여기를 최우선으로 할 거 같아. 이윤배반적인 거지. 살고 싶지는 않아. (사례 4)

사례 1의 인터뷰 응답자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우위에 두긴 했지만, 어쨌든 양가가 강남 아파트라는 하나의 상품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면, 사례 4의 인터뷰 응답자의 재현 속에서 ‘사는 곳’과 ‘사는 것’, 곧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아예 분리되어 있다. 즉 ‘회춘한 강남’은 “살고 싶지는 않”(사용가치)은 곳이지만, “대장주”로 상징되는

‘매력적이고 건실한 투자 상품’(교환가치)인, 따라서 “이윤배반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분리는 비단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과거 분당의 아파트에 살다가 현재는 분당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 17의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택을 이렇게 살면서. 그니까 인제, 새벽이 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아파트를 좀 지나가면서. 저희들 집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아 우리가 저렇게 성냥갑 같은 집에 저렇게 살았었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위에 내 우리 집 위에 사람이 또 살고 있고. 또 그 위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또 다 다른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랬어,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주택으로 들어가고 나서. (...) 근데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으면 그냥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주택은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사고팔기가 좀 손쉽지 않더라고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이렇게 인제. 내가 빠지고 싶을 때는. 아파트는 그래도 그게 기간이 되게 짧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내가 사 놓고 내가 거기를 전세를 주고. 내가 주택으로 가서 사는 것은 저거한테. 주택을 내 소유로 해 갖고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 [주거환경 면에서는] 저는 그런 주택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아파트 선호는] 환금성. 그것 때문에. (사례 17)

위 인터뷰 응답자는 단독주택·빌라와 (대단지) 아파트를 비교함에 있어, 전자가 사용가치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후자가 (“사고팔기가 좀 손쉽지 않”)은 전자에 비해 “환금성”이라는 교환가치적 측면에서 이점이 더 크다고 재현하면서, “지금은 할 수 있으면 그냥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즉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우위에 두고 주거를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요점은, 도시 중산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의 인터뷰 응답자들 대다수가, 주택과 도시를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와 자산으로 재현하며(더 정확히는 재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후자를 전자보다, 또는 최소한 못지않게 중시한다는 점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강남이 점하고

있는 “대장주”라는 지위는, 전자와 결부되어, 심지어 전자와 독립적으로, 강남에 대한 도시 중산층의 욕망과 매혹의 정서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한다. 이 정서적 동력에 힘입어 강남에 대한 도시 중산층의 투자가 유발되고, 만약 강남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유력한 (신)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강남을 정점으로 한 주요 신도시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다. 강남을 비롯한 여러 신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한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만족감을 드러냈다.

요기[아들에게 마련해 준 강남아파트]를 해주면서. 서른 몇 평인가 애가 둘인데 집이 좁지. (...) 아이 하나 낳고, 하나 더 낳으니까 (...) [아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대만하다고, 어떻게 애 하나 더 낳을 생각을 했냐고. 자기 때, 어 집장만 해서 결혼하기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쉽지가 않대요. (...) 그래서 내가 야 집이 좁아서 어떡하나~ 이랬더니, 엄마 저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친구들, 선배들. 집 없어서 결혼 못하는 친구들 많고 부모들도 시골에서 뭐 보내라, 어디 아프다 입원비 보내라, 어디 뭐 계 물렸다. 사무실에 있어보면 알잖아요. 친구들 보이면. 그렇게 부모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선배들도 있고. 저 정도면 엄마아버지가 고맙고 그렇다고. 효자잖아요 그런 말해 주는 게. 저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례 5)

하지만 위의 인터뷰 응답자처럼 여러 개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자산을 축적한 사람과 달리, 집 한 채가 자산의 거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도시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에 직면한 좌절감, 나아가 자신들이 현재 속한 도시와 지위에서 조만간 밀려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 그런 불행을 피하더라도 결국은 마주치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정서다.

[강남이] 재건축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지 지금~.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때 우리가 살던 데보다 더 강한 진입장벽을 가진 지역이 된 게 아닌가. 그렇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분당 집을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이미. 철용

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례 4)

주변에 보면 강남에 살다가, 아이들 하나들 결혼 시키고 분당 왔다가, 또 수지 갔다가, 지금은 신갈 쪽으로 갔다가 수원 쪽으로 갔다가 점점 점점 멀어져요. 강남 차남 딸 결혼시키고 나면 주변에 남겨져요. 예. 자식이 뭔지 다들 그래요. 우리만 해도 그래도 가까이 앉은 거죠. 그나마 나이 있을 때. (사례 5)

남자가 결혼하는데 돈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아이가 혼자서 벌어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애도 지가 벌어서 자기가 마련해서 결혼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집값 말고 셋값도 이렇게 올라서 남자아이가 결혼하기에 이렇게 힘들어진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 그러니까 저두 생각을 못했고. (...)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개념 차이예요. (...) 저는 그렇게 있어 산 사람이 아니라서 집이나 내가 물려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썩 돼 있진 않은데, 여기[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 어차피 개를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근데 자식이 결혼 못 하고 있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생각은 아니예요. 될 수 있으면 니가 돈 벌어서 가라. 없이 생각해라.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해요. 엄마로서. 자식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안 주는 게 맞기는 한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어서. 왜냐면 모두다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 그니까 나두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큰 일났다. 그럼 내가 집 팔고 나면 난 노후에 어떻게 하지. 그럼 진짜 난 가없는 엄마가 되나. (...)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층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위층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집 한 채도 없는. 전세밖에 없는. 내가 다른 곳으로 분당 이 쪽으로 옮길 데도 없어요. (...) 저 집을 팔면 작은 집 어디 가서 살겠지 했는데 그걸 아들을 준다? 그럼 중산층도 아니죠. 그리고 그 집이 있다 해도 요즘은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도 아니지. 그냥 최하위계층이 아니라는 거지, 제가 나라에서 혜택을 안 받는다는 거지 중산층일 수가 없죠.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살 때 신도시가, 부자동네 살다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제가 저쪽[성남]에 살면 그런 생각 안하고 살 수 있겠죠. (사례 19)

아울러 강남과 분당 등 초기 신도시들은 ‘도시 중산층’의 공간에서 ‘도시 상류층’의 공간으로, 따라서 이 공간에 속하는 주민들의 지위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업적적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만이 진입할 수 있는) ‘귀족적 지위’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재현도 관찰할 수 있었다.

어~ 분당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부모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 같아요. 그런 세대가 많아졌다? (...) 그런 게 인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여기 분당도 그래요. 지금 보면. (...) 자기 돈으로 살 순 없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 왜냐면 분당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 근데 여기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어떤 의미에서 강남이나 분당이나 그런. 부모님들이 준 돈으로 젊은 세대들이 처음부터 스타트를 시작한 세대들이 눈에 띈다? 강남은 그런 거. 옛날에는 여기도 원주민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물갈이가 됐다고 느껴지나 그런. (...) 여긴[분당] 저희는 그때. 추천돼서 당첨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저희는 싸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 저희 세대가 이제 이렇게 가면. 저희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는 젊은 애들한테 이런 거 못 주는데. 물론 젊은 애들 사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 신도시 와서 우리가 많은 돈 안 들고 들어와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이지 않을까. 내 자식한테 내가 못 준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사 줄 수 있겠어요 집을. 그건 힘들잖아요. (...) 저희 그런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오피스텔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 그 전에는 적은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신도시 메리트였다면 이제는 딱. 틀이 잡혔잖아요. 한 세대가 돌았잖아요. 그런 세대가 빠지고 나면 기준에 가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겠죠. (사례 18)

아 저렇게 살아야 진짜 강남이라, 강남에 산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에 제약받지도 않고, 돈에 제약받지도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 주말 되거나 무슨 날 되면. 꼭 뭐 호텔가서 쉬고 하더라도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강남 산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저는 그거 훈장이예요. 나는 강남에 오래 살았지만, 강남의 꼬리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다. (...)

[강남]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준비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요. 옛날처럼 그렇게 저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 사실은 뭐 작은 아파트에 들어와도. 뭐 전세를 해도. 4억 이상 넘지 않으면 강남에 못 오잖아요. (...) 부가 이미 진짜 나이가 쉰든 젊어도. 이미 사회적인 그 경험과 부가 축적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 있는 사람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례 7)

도시 중산층이 욕망하는 ‘기원적 대상’이자 그 욕망을 동원하고 갱신함으로써 이룩된 도시에서, 그 ‘주인’이었던 도시 중산층이 내몰리는 역설, 이는 ‘대장주(大將株) 강남’과 ‘자산으로서의 도시’라는 재현에 따라 행동했던 도시 중산층이 도달한 어떤 막다른 골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4. 결론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 중산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강남을 ‘이상적 (신)도시’로 재현하고, 그러한 생활 공간을 선호했다.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것은, 강남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나 강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인터뷰 응답자 역시, ‘정돈된 공간’이나 ‘고급 대단지 아파트’ 등, 강남에서 ‘발명’된 도시경관을 이상적 (신)도시의 특징으로 재현·선호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응답자들 대다수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에서 강남이 ‘원형적 준거점’의 자리를 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도시적 이상에 대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강남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하지만 강남은 단순히 ‘최초의 신도시’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도시간 중심-주변 구조에서 중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국구’이며, 이 전국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은 대체불가능하다는 재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이 재현 때문에 강남 이외의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은, 강남에 대한 지속적 욕망, 적어도 강남과의 실재적, 상징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과 선호를 드러냈다. 그런데, 도시들 간의 중심-주변적 관계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다층적, 다중적 특성을 지닌다. 즉, 강남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중산층들은 도시 간 관계에 대한 중심-주변적 재현을 바탕으로 강남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신도시의 중심성을 주변의 다른 도시와의 관계에 투영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결국,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교육 서비스와 소비활동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강남 vs. 비강남’의 구분을 ‘중심-주변’적 위계관계로 재현하고, 이러한 위계적 서열화를 ‘신도시 vs. 비신도시’ 사이의 관계로도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소/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중심-주변 관계의 다층적, 다중적 재현은 교환가치에 기반하여 도시공간과 주택을 재현하고 평가하는 태도와 결합된다. 대다수 인터뷰 응답자들은 주택과 도시를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로도 재현했고, 후자를 전자보다, 최소한 못지않게 중시했다. 그리고 후자 면에서 ‘대장주’의 지위를 점하는 강남을 정점으로 (신)도시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재현도 나타났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 강남을 정점으로 하는 (신)도시들을 향한 지속적인 욕망과 매혹,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강남 이하 (신)도시에서 밀려나가거나 소외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었다(이 불안감은 강남에 가깝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도시와 주택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특정한 물질적 이해와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먼저, 주택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투기적 욕망을 뒷받침하고 도시에 대한 (재)개발주의를 정당화한다. 또한 이상의 재현 및 그것이 동반하는 욕망·기쁨·슬픔 따위 정서가 ‘자산으로서의 도시’를 추구하는 주체로 도시중산층을 ‘호명’(interpellate)하는 경향을 갖는

다. 즉 이 논문에서 살펴 본 도시에 관한 재현들은, 한편으로 특정한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를 편들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이 재생산을 수행하는 주체(‘자산기반 도시중산층’)를 호명한다는 점에서, 도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다.

만일 한국의 기존 도시 체제가 현재 한국의 도시 문제를 낳은 구조적 원인이고, 이 구조적 원인을 뒷받침하는 차원 중 하나가 이상에서 살펴본 도시 이데올로기라면, 한국의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 하나는 다른 식의 도시 체제를 뒷받침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강남화’, ‘신도시화’,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강남과 대비되는 ‘강북’ 지역을 ‘강남화’하려는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는) ‘뉴타운’ 등은 기존은 해계모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적극 반영하는 도시 담론이다. 현재의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도시의 건설은 이러한 도시적 담론과는 다른 도시(성)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험하는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헌

- 강내희, 2004, 강남의 계급과 문화, 황해문화, 42, 62-84.
- 강준만, 2004, 강남은 한국 자본주의의 엔진인가?, 인물과 사상, 73, 116-167.
- 길혜연(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서울(Valérie Gelézeau and Jean-Robert Pitte,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s radieuses*, OpenEdition Books.)
- 김남일·백선기, 2008, 언론매체의 ‘강남권역’신화형성과 이데올로기, 언론과사회, 16(2), 2-36.
- 김아람, 2013,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 29, 47-84.
- 김형국, 2004, 강남의 탄생, 황해문화, 42, 10-24.
- 박철수, 2013,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서울.
-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서울.
- 박해천, 2013,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서울.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 63-97.
- 이동현·이향아, 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짓기의 논리, 서울학연구, 42, 123-171.
- 이영민, 2006, 서울 강남의 사회적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1), 1-14.
-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 28, 9-38.
-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서울.
- 조명래, 2002, 현대 사회의 도시론. 한울, 서울.
- 조명래, 2004, 신상류층의 방주로서의 강남, 황해문화, 42, 25-40.
- Brenner, N. and Schmid, C., 2014, The ‘Urban Age’ in Que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IJURR)*, 38(3), 731-755.
- Douglas, M., 2008(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
-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Minnesota University Press, Minneapolis.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09-922.
- Schmid, C., 2012, Henri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the New Metropolitan Mainstream, in Brenner, N., Marcuse, P. and Mayer, M. (eds.), *Cities for People, Not for Profit: Critical Urban Theory and the Right to the City*, Routledge, New York, 42-62.
- UN(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 Highlights*, United Nations.
- Wachsmuth, D., 2013, City as ideology: reconciling the explosion of the city form with the tenacity of the city concep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1, 1-16.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 교신 : 박배균,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이메일: geopbg@snu.ac.kr, 전화: 02-882-9873)
- Correspondence : Professor Park, Bae-Gyoo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Seoul, Korea, 08826(email: geopbg@snu.ac.kr, phone: +82-2-882-9873)
- (접수: 2016.04.15, 수정: 2016.05.10, 채택: 2016.05.20)